2년간 공모사업 1954억 확보 '역대 최대'

나주시 민선 6기 전반기 성과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 총력
에너지밸리 R&D센터 유치
산업구조 혁신적 발전 기대

강인규 시장

나주시는 민선 6기 2년동안 도시재생 공모사업비로 국비 1104억원을 확보해 읍성권 개발 등 원도심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나주시가 민선 6기 전반기 2년동안 역대 최대인 2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국비를 확보하는 등 시정 각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나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전남도내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규모 국비확보로 침체한 나주시의 경제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6기 나주시를 이끌고 있는 강인규 나주시장은 그동안 정부의 공모사업 전환 방침에 따라 도시재생과 농업농촌 활력, 에너지수도와 에너지밸리 조성 등과 같은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 강 시장은 지방 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비확보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공모사업 등을 따내는 데 집중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년 동안 나주시는 도시재생분야에서만 공모사업비로 전체 국비 확보 예산의 50%가 넘는 110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빛가람혁신도시 조성으로 초래될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나주시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나주시는 또 도시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사업비 374억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한 데 이어 나주잠사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49억 원, 도시재생사업 100억 원, 나눔숲체원 조성 200억원 등을 확보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은 토지와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개발 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낙후지역의 자생력 및 지역 정주인구 확보, 지역경제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나주시는 공모사업과 별도로 올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관련 예산을 103억원이나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해 118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 성과물이다.

나주시는 국가예산을 끌어들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농업분야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난해에만 생활권 중심의 소생상생 로컬푸드 체계 구축 28억원, 농촌지역 활력증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2억원, 농어촌 축제지원(문평면 명하 쪽 축제) 3000만원 등 3건에 30억3000만원을 받아냈다.

올해에도 5월말 현재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세지농협 APC 개보수) 6억원, 도시텃밭 조성 5000만원, 농어촌 축제지원 2000만원 등 6억7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나주시는 혁신도시조성과 함께 한전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밸리 분야 공모사업에서도 실적을 내고 있다.

시는 지난 2년 동안 ▲에너지신산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 392억원 ▲농공 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116억원 ▲메가와트 급 태양광발전 실증단지 구축사업 112억원 등 813억원에 이르는 에너지 관련 국비를 가져왔다.

시는 특히 최근 한전의 '에너지밸리 R&D센터' 나주유치 확정으로 에너지밸리 활성화에 비약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나주혁신산단 분양에도 가속화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직원의 노력과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 '한전 에너지밸리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혁신산단의 분양 활성화와 에너지밸리의 완성에도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나주의 밝은 미래를 목표로 앞으로 국비 예산 확보와 국가사업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나주 현안사업 해결 위해 국비 확보 한마음

나주시·손금주 의원 정책간담회

나주시는 "지난 10일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손금주 국민의당 국회의원(나주·화순)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나주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나주시 직업훈련원 리모델링 사업 ▲이창택지(풍물시장)~국도 23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2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또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영호남 지명유래 고도 전통문화자원화 사업 ▲정명(定名)천년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남평 십리송복원 사업 ▲도시산림공원재해 예방사업 ▲나주・산포·공산 공공하수처리장 개량사업 ▲공산과 다시지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도 건의했다.

강인규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주는 인구 10만명 회복과 한전 에너지밸리 R&D센터 유치를 통한 에너지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위대한 나주미래 100년'을 열어가고 있다"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전하는 나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힘이 필요한 만큼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금주 의원은 "모든 부문에서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앙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국비 확보 건의사업에 대한 논리개발과 법리근거 등에 충실해서 해당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에 셔틀버스 전달

나주시는 최근 중부노인복지관에 25인승 셔틀버스를 전달했다.

나주시가 시민체감형 복지 서비스로 복지관과 양로원에 어르신들을 위해 차량지원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중부노인복지관에 25인승 셔틀버스 차량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을 통해 나주시노인복지관에 셔틀버스 확보와 나주시 노인요양원에 휠체어 차량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방문 어르신들의 편의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한진국 중부노인복지관장은 "2014년 개관 이후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읍·면지역을 벗어나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특히 이번 셔틀버스지원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봉황농협, 농림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사업에 선정된 나주봉황농협 임직원이 최근 '365 농작업 대행 시범사업단' 발대식을 가졌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3년동안 20억원 지원받아
가공·유통까지 사업다각화

나주봉황농협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선정돼 쌀산업과 논 타작물에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봉황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사업다각화사업은 생산을 비롯한 가공유통 등 타산업 부분까지 추진할 수 있는 패키지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나주 봉황농협은 314농가 313ha 들녘이 참여하는 경영체로 앞으로 3년간 총 20억원을 지원받는다.

봉황농협에 들녘경영체는 1년차에 1모작 품목에 특수미인 찰벼 재배로 논농업을 다양화하고, 2모작 재배 51농가에 31.5ha를 확정해 365 농작업대행 등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2년차에는 소형도정시설 구축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로 생산물을 소포장 상품화하고, 쌀로 만든 떡과 콩으로 만든 두부·된장 등을 제품화한 뒤 3년차에 가공시설 설립 및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나주시의 들녘경영체는 올해 남경영농조합법인 외 4개소를 선정해 추진하는 등 모두 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들녘경영체를 쌀 경쟁력 제고와 함께 농업농촌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소득원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규모의 영농으로 공동농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50ha 이상 들녘 2800여 개소 중 2020년까지 500개소의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기로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나주농협 농번기 일손돕기 농협나주시지부(지부장 정순열)와 나주농협 임직원 20여명은 지난 14일 나주농협 육묘장에서 모판정리 등 농번기 일손돕기를 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